



과학 저널리즘
진달용 지음

뉴미디어 속 과학 살펴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최근에 부쩍 과학과 관련된 주제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과학 저널리즘은 주로 과학면을 통해 접하는 자연과학, 의학 및 첨단 과학을 뜻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 재해에 대한 보도나 위기 보도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진달용 교수가 펴낸 '과학 저널리즘'은 급변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과학 저널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들여다본다. 책에는 과학 저널리즘 정의, 역사, 전망, 이론, 과학자 역할, 윤리 등을 주목하며 소셜 미디어와 빅데이터 등 뉴미디어 중요성을 살펴본다.

21세기 들어 빅데이터가 뉴스를 지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이 과학기술 분야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과학 저널리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울·2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울이다
고형렬 지음

혼돈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독특한 발상과 어법으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펼쳐온 중견 시인 고형렬이 열 번째 시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울이다'를 발간했다. 2013년 '지구를 이승이라 불러 줄까'를 잇달아 펴낸 지 2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자신만의 예리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시인은 불안과 혼돈의 세계에서 희망보다는 절망과 어둠을 통해 길을 내고, 그 어둠 너머의 빛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과 이를 바탕으로 시 쓰기의 열정을 드러낸다.

시인은 "모두 나의 꿈과 상처를 밟지 않고선 발을 댈 수 없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며 "나약한 나의 독초(毒草)들은 중심의 뒷면에 웅크린 채 무언가를 제대로 듣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 발간 의미를 밝힌다. <창비·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육식은 인간의 당연한 윤리일까?

동물을 위한 윤리학

최훈 지음



인간과 동물은 선사시대 이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동물은 고기와 가죽,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더러는 생태계 일원으로 인간과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동물이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뿐 아니다. 한국 사회 채식 인구 비율은 1%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물을 대하는 부정적 행태도 적지 않다. 지난해 유기동물이 8만 1000마리에 달할 만큼 동물 학대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쪽에서는 '윤리적으로' 동물을 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집승처럼' 대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라는 게 있을까?

'채식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강원대학교 최훈 교수가 이 문제를 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통 느끼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도 가져

동물도 존중 받아야

고찰했다. 저자는 인간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필 동기를 찾는다.

"왜 우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데서 보듯 저서 '동물을 위한 윤리학'은 앞서 논쟁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먼저 다음의 질문을 던져 보자.

동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지위가 없을까? 육식은 인간의 당연한 윤리이고 채식은 개인의 취향일까?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를 산 채로 매장하는 건 윤리적으로 용납되는 행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식의 윤리'는 '가짜 윤리'로, 저자는 동물을 도덕적 지위가 없는 '자동인형'으로 인식한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논리를 비판한다.

저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감응력'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다.

저자는 이 같은 근거로 종(種)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종차별주의'를 반대. 종차별주의는 합리적,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아나 지적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극단적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은 동물실험, 구제역 살처분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한다. 인간 중심적인 이익에 토대를 둔 종차별주의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을 대상으로 어떤 도덕적 견해를 견지해야 할까. 역으로 동물은 어떤 윤리적 지위를 갖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을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채식에 답한다. 채식은 특정인의 취향이 아닌 동물에 대한 의무이자 모두를 위한 윤리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동물의 본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꼭 채식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경우 그 동물의 본성에 맞게 사육한 다음에 고통 없는 도살이 가능하다면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냥도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고 고통 없는 죽임이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

이처럼 '채식주의 철학자'답게 저자의 주장은 뚜렷하다. 기존의 동물을 바라보던 종차별적 인식의 전환을 역설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육식과 채식의 명확한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이다.

<사월의 책·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땅콩회항'으로 본 기업경영 새 프레임 '평판'



평판사회

김봉수 외 지음

근래에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땅콩회항'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책은 언론에서 비쳐지는 두 진영의 공방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그 대신 땅콩회항을 토대로 우리 사회와 기업문화의 본질을 포착하고 더 나은 행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평판사회'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업에 사회적 명분과 사회적 가치, 사회

적 관계가 요구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판을 잃고 위기에 내몰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직 기자와 기업 컨설턴트, 변호사 등 5명의 저자가 공동집필한 '평판사회'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평판'을 조명한다. 저자들은 땅콩회항을 "시대와의 불화로 빚어진 사건"으로 정의한다. 이전과는 달리 기업에 사회적 가치와 명분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이러한 현실에 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판사회 단편들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저자들이 평판사회의 첫 번째 장면으로 제시한 것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다. 피해자 아내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로 수사본부가 차라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수사의 방향이 잡혔다. 여론 수시라는 새로운 질서가 현존하는 체계보다 더 큰 해결책이 된 경우이다.

저자들은 공중의 여론, 대중의 평판이 기업의 전략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즉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명시하지만, 여론의 법정에서는 결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선언한다. 땅콩회항의 1심 판결에서도 유죄추정의 여론법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재판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RHK·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 후 인권변호사까지

'청년 노무현' 생생한 구술 기록



노무현의 시작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엮음

대통령이 이전의 '청년 노무현'에 관한 첫 구술기록집 '노무현의 시작'이 출간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엮은 이 책은 1978년 변호사 개업에서 시작해 1987년에 이르기까지, 만 32세에서 41세가 되는 동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게 그 길을 걸었는지 보다 풍부한 구술을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기록 대통령'이기도 한 노무현이 저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전한 '청년 노무현'의 이야기들은 그와 인연을 맺었던 열 세명의 구술자들에 의해 보다 생생하게 전해진다.

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세 지점으로 분류됐다. 해당 시기를 함께 하거나 처음 인연을 맺었던 구술자들의 기억과 증언은 원본 텍스트로써 저서전 또는 생전에 노무현이 남긴 말과 글에 풍성함과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생각의길·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 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한화성명 ● 주안동 ● 고려우치동
● 구.한미소핑 ● 동부소방서 ● 북경랑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